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7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가 저소득 고객들에 대한 경쟁적인 에너지 서비스 회사들의 판매행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취약한 소비자들을 고가 에너지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경쟁적인 에너지 회사들이 저소득 고객들에게 전기와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정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매년 거의 2백만 명의 저소득 뉴욕주민들에게 2억 4,800만 달러를 직접 절감시켜준 것으로서, 저소득 고객들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서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앞선 조치에 뒤따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부도덕한 에너지 서비스 제공사들로부터 저소득 가정을 보호하도록 돕고, 주 전역에 걸쳐 뉴욕주민들에게 많이 필요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에너지 비용을 걱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뉴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Audrey Zibel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가 구매될 때, 저소득 고객들은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들로부터 제공받는 전기 및 가스 공급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는 점이 기록상 명백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저소득 고객들을 위해서 에너지 가격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저소득 고객들이 가스와 전기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쟁적인 소매업체들에게 공급받은 전기와 가스의 비용과 같거나 미달되는 절감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공서비스부 고객 옹호관(Consumer Advocate) **Michael Cors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의 기존 프로그램들의 혜택들이 그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저소득 가정이 에너지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근본적 우려에 대처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변화는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적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보호받는 저소득 고객의 전형은 우리 주 평균 소득의 60% 또는 연 17,264달러에

해당되는 소득을 얻고 있는 4가구 중 1가구이며, 이들은 그 소속된 지역 유틸리티의 저소득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가구는 그 소득의 22%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적정 가격 정책하에서는 6% 이하가 될 것입니다. 시행된 정지 조치에는 계약 갱신도 포함합니다.

이 결정은 ESCO 고객 서비스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조치입니다. 2월에 위원회는 ESCO가 뉴욕 주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뉴욕에서의 사업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고객들에게 "Do Not Call"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처럼 부적절한 침범으로부터의 동일한 자유를 제공하는 "Do Not Knock" 규칙을 도입했으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서의 방문 판매를 규제하는 지역의 권유 규칙을 무시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뉴욕에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저소득 고객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에너지 관련 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정하고, 판매 시점의 저소득 고객 확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기술과 방법을 검토하며, ESCO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 저소득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이해관계자들과의 일련의 협업적 회의에 뒤따른 것입니다. 현재 ESCO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 고객들은 40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소득 고객들은 뉴욕주의 모든 전기 고객 중 약 25%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협업적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일부 ESCO는 그들이 저소득 고객들에게 보증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제공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 또한 저소득 고객들에 대한 비용 효율적 혜택을 제공하게 될 에너지 관련 부가가치 서비스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저소득 고객들이 유틸리티 상품 서비스(utility commodity service)를 통해서 가장 잘 서비스를 제공받고 보호받게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틸리티 저소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 고객들은 그들의 에너지 서비스를 ESCO가 아닌 유틸리티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5월에 승인된 에너지 적정 가격 정책은 클린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고,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우리 주 전력 필요량의 50%를 충당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뉴욕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종합 전략인 Reforming the Energy Vision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저소득 뉴욕주민들을 위해서 에너지 비용을 많은 저소득 고객들이 현재 지출하고 있는 금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가구 소득의 6% 이하로 제한할 것입니다.

에너지 적정 가격 정책하에서, 가구 소득과 취약 거주자의 존재에 따라, 전기 고객들은 11달러 내지 44달러의 월간 할인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전형적인 서비스 지역에서의 5달러 내지 15달러에서 인상되는 것입니다. 가스 고객들은 3달러 내지 33달러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뉴욕의 230만 저소득 가구 모두에 미치기 위한 예산은 유틸리티 수입의 2% 이하로 상한이 설정될 것이며, 이는 다른 종류의 고객들에 대한 요금 효과와 균형을 맞추는 한편으로 대부분의 유틸리티에 대해서 6%의 에너지 부담 목표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금전 지원의 증가는 저소득 뉴욕주민을 위한 우리 주의 연간 에너지 투자액 7억 5,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 중 일부입니다. 저소득 고객들을 위한 유틸리티 할인액은 현재 연간 총 1억 3,000만 달러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전기 및 천연가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ESCO는 약 200개사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거주자 고객 및 소규모 상업용 고객의 20% 이상이 소매 공급자들로부터 에너지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약 700만 명의 주거용 전기 고객과 대강 430만 명의 주거용 천연가스 고객이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